

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업캐스팅은 상속관계에서 자손타입의 참조변수가 조상타입의 참조변수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.</li> <li>2. 다운캐스팅은 상속관계에서 조상타입의 참조변수가 자손타입의 참조변수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.</li> <li>3. 다운캐스팅 전제 조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첫째, 상속관계를 만들어야 한다.</li> <li>둘째, 다운캐스팅을 하기전 먼저 업캐스팅을 해야 한다. 이유는 업캐스팅을 한것에 한해서만 다운캐스팅을 허용한다.</li> <li>셋째,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하여 명시적인 다운캐스팅을 해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/ol>

instanceof 연산자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참조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실제 타입을 알아보기 위해 instanceof 연산자를 사용한다.</li> <li>2. 주로 if 조건문을 사용하며, instanceof 연산자의 왼쪽에는 참조변수를 오른쪽에는 타입(클래스명)이 피연산자로 위치한다.</li> <li>3. 연산의 결과가 true로 나오면 참조변수가 검사한 타입으로 형변환이 가능하다는 뜻이다.</li> </ol>

자바의 추상클래스 특징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추상클래스는 abstract 키워드로 정의한다.</li> <li>2. 추상클래스는 객체 생성을 할 수 없다.</li> <li>3. 추상클래스에는 추상메서드가 올수 있다. 추상메서드는 {}가 없고 ,실행문장이 없다. 그러므로 호출이 불가능하다.</li> <li>4. 추상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클래스에서 부모 추상클래스의 추상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한다.</li> <li>5. 추상클래스는 멤버변수와 메서드를 가질 수 있다.</li> </ol>

final 키워드 특징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변수를 final로 정의하면 수정할 수 없는 변수 즉 상수가 된다.</li> <li>2. 클래스를 final로 선언하면 더 이상 상속을 허락하지 않는다.</li> <li>3. 메서드를 final로 선언하면 더 이상 오버라이딩을 허락하지 않는다.</li> </ol>

자바의 상속방법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를 구현: implements</li> <li>2. 클래스에서 부모클래스 상속: extends</li> <li>3.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 상속: extends</li> </ol>

자바의 인터페이스 특징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인터페이스는 <b>interface</b> 예약어로 정의한다.</li> <li>2. 인터페이스는 <b>하나 이상의 부모로부터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.</b></li> <li>3. 인터페이스에는 <b>public static final</b>로 인식되는 클래스(정적)상수만 올수 있다.</li> <li>4. 인터페이스는 <b>public abstract</b> 로 인식되는 추상메서드가 올수 있다.</li> <li>5. 인터페이스는 자식클래스에서 <b>implements</b> 키워드로 구현한다. 상속받은 자식클래스에서 부모 인터페이스의 추상메서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야 한다. 그래야 자식클래스 객체 생성이 가능하다.</li> <li>6. 인터페이스는 객체 생성을 못한다.</li> </ol>

자바의 예외 처리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바에서 실행 <b>예외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했던 에러를 의미</b> 한다. 자바는 컴파일 할때는 예외 처리 코드를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에러가 없다가 실행될때 예기치 않는 에러가 발생되면 예외 처리 클래스를 통해서 예외를 처리한다.</li> <li>2. 자바에서 대표적인 <b>예외 에러는 정수 숫자를 0으로 나눌때 예외를 발생</b> 한다.</li> <li>3. <b>예외 처리 방법</b>  첫째, <b>try ~ catch문</b>  <pre>try{     정상구문이 실행되다 예외가 발생하면 제어가 catch문으로 옮겨진다. }catch(예외 처리 클래스 e){     예외 처리할 문장; } //catch문에서 예외를 예외 처리클래스로 처리한다.</pre> 둘째, <b>throw 키워드</b>  throw는 예외를 일부러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키워드이다.  형식) throw new 예외 클래스 생성자;   셋째, <b>throws 키워드</b>  throws 키워드는 발생된 예외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호출한 곳으로 떠넘기는 역할을 한다.  형식) public void 메서드명(매개변수) throws Exception{.....}   넷째, <b>finally 키워드</b>  finally 키워드는 예외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에 실행한다. </li> </ol>

**다섯째. J D K 1.7 이후에 추가된 try-with-resources 문장**

가. 자원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반드시 close() 메서드로 닫혀져야 한다. 하지만 try-with-resources 문을 사용하면 문장의 끝에서 자원들이 자동으로 닫혀지게 한다.

나. 사용형식

```
try(리소스 자료형1 변수명1=초기값; 리소스자료형2 변수명2=초기값2;...){
    문장...
}
```

다. 소스에

```
try(PrintWriter output=new PrintWriter("test.txt")){
    for(String s:list){//항상된 for
        output.println(s.toLowerCase());
    }//for
}
```

이처럼 try다음에 소괄호가 나오면 리소스로 취급한다. 즉 PrintWriter 객체가 try-with-resources 문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try문장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건 예외가 발생하건 간에 무조건 닫혀진다. 즉 finally문에서 close();메서드로 명시적으로 닫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당 객체는 닫혀지게 된다.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자원 객체가 java.lang.AutoClose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야 한다.